위기가구 긴급 지원제도

(에스겔 1:1~14)

1.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오 년 그 달 초닷새라
3. 갈대아 땅 그발 강 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6.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8.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위기가구 긴급 지원제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 지원제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지하벙커나 대피소 같은 것이 없었던 시절에는 더욱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면 피할 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난관에 부딪쳤더라도 해결책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 자체가 지상에서 만나는 모든 난관들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솟아날 구멍입니다.
올해 정부에서 “2019년 긴급지원 사업 안내 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긴급지원이란 갑자기 실직을 당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휴폐업을 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부양해야 될 식구가 있고 사업을 위해 빚까지 졌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인해 수입원이 끊기게 되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솟아날 구

멍을 제공해주자는 취지로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를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위기가구 긴급지원대상은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약 338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이 실직을 하면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안내 지침에 의하면 이보다 소득이 많은 450만 원 이하의 사람들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입장으로서는 복음이 제공하는 "위기가구 긴급지원 제도"는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솟아날 구멍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부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솟아날 구멍을 제공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적 의미에서 하늘은 무너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알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잃었어도 하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잃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건재하고 하나님이 건재하시는 한 이 지상에서는 어떤 난관과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하늘은 솟아날 구멍이 됩니다.
실직을 당했거나 휴폐업을 하신 분들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숨통 틔우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보다 근원적인 솟아날 구멍을 제시해줍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전체는 바로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늘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제공해줍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에 대한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솟아날 구멍으로써의 하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은 레위인으로써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30세가 되면 성전봉사를 시작했는데 '서른째 해 넷째 달'이라는 언급이 의미하는 대로 에스겔은 30세가 되어서 본래라면 성전봉사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2차 포로 이송 때에 함께 끌려갔습니다. 포로 이송은 BC.605년과 597년과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겔은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93년에 부름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예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586년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망한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취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난관에 부딪쳐있는 선민들에게 하늘 자체를 솟아날 구멍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예언의 시작으로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환상의 묘사가 무척 형용하기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피카소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에스겔의 환상은 단순히 보고 느낀 대로 묘사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우리의 마음과 천국과 세상의 위치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 가운데 마음이 있고 한편에는 천국과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육체와 세상이 있습니다. 강릉에 가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 마음에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혀를 통해 맛있다는 느낌이 마음에 전달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마음에 느낌을 받듯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나라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 모습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시각적 표현들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에서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세상을 망각할 정도로 강렬한 좋음을 느꼈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천국을 보고 마음에 느낌을 갖게 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믿음이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에 대한 느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다만 오늘 에스겔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나오는 환상들의 경우에는 변화산 사건처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 받게 된 느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표현이 추상적이고 난해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지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상으로 드러난 천국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무엇이 얼마나 섞였는지 생각하지 않고 맛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또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직관적으로 마음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게 마음에 느낌을 줄 수 있는 실제 대상으로 실존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상에서의 삶이 어려울 때에 육체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듯이, 하늘은 솟아날 구멍으로써 내

게 소망을 주는 실존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2612년 전에 이 환상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이 접한 천국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시간이라는 개념 바깥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 30분에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문 바깥으로 밝은 달이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보이던 달이 수원을 지나 대전을 지나면서도 똑같이 보이고 부산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달은 지구 바깥의 공중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달로써 보이게 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바깥의 영원함에 속해 있습니다. 달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곳이 서울이든 대전이든 부산이든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면 되듯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난관에 처해 있든지 천국으로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다. 2612년 전에 에스겔이 보던 천국이 서울에서 바라보던 달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대전이나 부산에서 바라보는 달입니다. 내가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떠한 위기에 처해있든지 똑같은 천국을 솟아날 구멍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네 생물의 환상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 하나하나를 상세히 해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선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천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스겔의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바라셨던 관계의 온전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온전한 관계를 형상화 시켜놓은 것이 바로 이 환상에 등장하는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가 쏟아진다는 표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따로 해당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북미관계가 훈풍이 분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관계가 살얼음판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훈풍이나 살얼음판은 북한이나 미국을 따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북미관계를 형상화 시킨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생물은 에스겔의 이름이 “강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이라는 뜻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하게 관계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수종을 드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이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은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네 생물이 상징하는 대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다면, 우리가 삶에서 위기를 겪을 때에 하늘은 솟아날 구멍이 됩니다. 하늘에서 결정하신 뜻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에 매진함으로써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와 같이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늘이 솟아날 구멍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와 노예생활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선민이 실제로 잃은 것은 나라와 재산이 아닌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이 처한 힘든 상황은 하나님을 잃은 것에 대한 표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에 마음을 빼앗겨서 슬퍼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표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잃었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직하고 폐업해서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내가 마음에서 잃은 하나님과 천국은 지금도 건재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천국을 잃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지상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을 상실하였음을 가리키는 표시로써 나타난 일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네 생물의 '넷'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네 생물의 넷은 쉽게 말해 동서남북의 모든 방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遍在性, omnipresence)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재성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의미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현실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에서 본 달이 대전이나 부산에서 보는 달과 같듯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위기를 겪을 때에 솟아날 구멍은 이 사업장에 계시며 이 사업장의 진짜 현실인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면 됩니다. 또 가정에서 위기를 겪을 때에 이 가정의 진짜 현실은 당면한 곤란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

시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느껴야 하는 현실은 하나님이고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이 넷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삶은 차원이 다른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마음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운데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과 천국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육체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마음이 육체와 육체로 접하는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낌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천국 쪽으로 마음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실은 주관적이고 사실은 객관적입니다. 숱한 사실들 중에서 나의 마음이 보태어진 것만이 나의 현실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들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붙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실에 대해 마음이 붙은 결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다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현실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선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유다가 망해서 선민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마음을 붙이자 현실이 괴롭기 그지없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보는 달과 부산에서 보는 달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회복하면 솟아날 구멍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칠십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나라를 재건시키실 것까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언을 주셨으니 더는 지상의 문제에 마음이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고 하늘을 솟아날 구멍으로 삼고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네 생물을 묘사한 말씀을 살펴보면 5~6절에서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네 생물에게 각각 네 얼굴이 있으니 합해서 열여섯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이 각기가진 네 가지 얼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실 때에 가지시는 속성을 상징합니다.
먼저 사람의 얼굴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관계하실 때에 인간이 가진 지정의(知情意)의 차원에서 관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과 관계하시지만 인간과 동일한 차원이 아닌 주권자이자 왕으로써 관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인간에게 지정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

력이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일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일들에 대해 마음이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나의 의지 속에 넣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의지의 내용을 나의 의지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소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번제물의 대표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시고자 그 주권을 사용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하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에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시임을 깨닫는다면 얼른 돌이켜서 사자의 얼굴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려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아먹는 사자가 아니라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소처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마음 놓고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소로 대표되는 번제물이 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구도 그 주권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떤 염려가 예측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붙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하늘을 향해 빠져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품에까지 도달하기를 바라십니다. 22절을 보면 이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궁창과 궁창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위의 보좌에까지 우리가 참여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실 때에 네 가지 측면으로 드러나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주인은 사자의 얼굴로 상징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인이라고 해서 사장이 나의 실직여부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통해 나를 실직하게 하실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빠른 명예퇴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런 분위기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져 갈 뿐입니다.
유다 나라가 망하고 선민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되찾는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한 푼도 없고 건강이 신통치 않고 자녀들이 문제일지라도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이 건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재

하시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뜻하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과 천국이 있다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즐거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누릴 뿐입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의 확대방침이 잘 적용되어서 실직한 직장인이나 휴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솟아날 구멍은 하늘이 되어야합니다. 삶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복음이 제공하는 하늘을 솟아날 구멍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에스겔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로 천국현실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세상 현실감에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만이 나의 유일한 솟아날 구멍이 되심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